

청년시청, 청년정책 추진 박차

익산시, 지난 12월 10일 개청 이후 100일 · 3월말 4107명 방문... 지원군 역할 '독특'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이 취·창업, 주거 문제까지 아우르는 지원망을 구축하며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10일 개관 이후 100일만인 지난 3월 말 4107명이 익산청년시청을 방문했다. 본격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1월부터 한달 평균 13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취업 박람회 취창업 상담과 프로그램 등 참가자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개관 100일을 넘어서며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방문 개관 이후 최다인 747명의 청년이 익산청년시청을 방문했다. 이달 10일 기준 누적 4천354명, 하루 평균 93명이 이곳을 방문한다.

이 같은 인기로 1월부터 서천군, 완주군, 곡성군, 전주시 등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전국 유관기관 등에서 익산 청년정책과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청년시청은 취업과 창업을 두 축으로 소통창구와 정책종합 컨트롤타워 역할로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성공취업’을 주제로 취업박람회(이하 취업박람회)가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돼 취업준비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취업박람회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식



품기업, 뿌리기업 등 영세·중소기업에게는 신속하게 근로자를 연결해 주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획됐다.

박람회를 통해 하림사업 및 마더스 제약 등 지역 우수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 면접을 통해 1월에는 13명의 청년이 2월에는 28명의 청년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박람회 외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중심의 채용설명회인 ‘청년취업 JOB콘서트’도 진행한다.

또한, 익산청년시청은 취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구직 기술 강화를 위한 ‘2023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특히 인기다.

2월에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단기 숙성 토의 특강반을 시작으로 3월에는 상반기 공기업 채용에 대비한 ‘취업 스테디 공기업반’을 운영해 높은 참여도를 이끌었다.

청년 구직단념자를 위한 취업역량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하며 청년취업을 가속화했다.

6개월 이상 취업, 교육·직업훈련 경험 없이 구직단념 청년 80명을 발굴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2월에는 28명, 3월에는 30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1:1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는 원광보건대학교 및 원광대학교와 손을 잡고 지역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청년시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시청 관계자가 직접 대학을 방문해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본 설명회는 비교과 교양강좌 커리큘럼으로 운영돼 교양과목 수강 시 2점의 학점 수여가 인정된다.

창업 지원 또한 청년들이 이곳에서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이다.

이미 지난 2월에 16명의 입주기업이 청년시청 3층 창업보육실에 동지를 틀고 본격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익산청년시청은 올해 창업지원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총 33억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가 148팀을 발굴·육성·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봄밤 경이롭게 변신한 백제 왕궁을 만나는 '익산문화재 야행'이 명실상부한 익산 대표 야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경이로운 변신 백제왕궁’

익산문화재 야행, 3일간 35000여명 방문... 야간경관 명소 발돋움

봄밤 경이롭게 변신한 백제 왕궁을 만나는 ‘익산문화재 야행’이 명실상부한 익산 대표 야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023 익산 문화재 야행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백제왕궁(왕궁리 유적)에서 3만 5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백제왕궁 후원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 획기적 변화 속에 진행된 2023 익산 문화재야행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 야경으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023 익산 문화재야행’은 날씨가 풀리면서, 첫날 행사장을 방문했던 방문객들의 입소문과 SNS를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타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인산인해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백제왕궁은 살아있다’라는 부제로 치러진 2023 익산 문화재야행은 백제왕궁의 곳곳이 화려한 포토존과 백제복식을 입은 사람들, 곳곳에서 펼쳐

지는 버스킹, 백제문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어 흡사 1400년 전 백제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문화재야행은 백제문화와 역사 해설 부분을 대폭 강화하면서 타행사 및 축제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왕궁리오층석탑 형태의 선풍기, 금제 사리함 시계, 수막새 만들기 등 백제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등이 풍부했다.

K한류의 원조였던 백제의 국제 교류를 알리기 위한 백제문화 국제교류관, 백제왕궁 초입부터 행사장 전구역에서 백제의 역사를 알려주는 백제왕궁 주제전시 등 곳곳에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섬세한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백제왕궁 석축 형태와 기와로 체험부스를 꾸미는 등 백제의 아름다움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구성한 것도 눈여겨 볼만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대표축제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가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어워드 콘텐츠투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는 축제산업을 홍보하고 축제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고 (주)한국전 시산업원이 주관해 3년째 개최된 축제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자치단체, 기업 등 118곳이 참여해 지역의 대표축제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 주력산업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군산 주력산업 일자리 매칭데이’가 열린다.

군산 전북조선업도약센터는 관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로 잠재된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산에이브호텔 컨벤션홀에서 ‘군산 주력산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 산업단지 내 주력산업인 제조업 관련 우진엔지니어링 등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생산직, 공무직, 분석 및 환경, 경영관리 등 채용분야에서 현장면접을 통해 10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8개 기업 중 7개기업은 매칭데이 현장에서 사전접수자 및 현장 접수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며, (주)원노비엘에스 1개 기업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산업단지내 현지 기업 본관등에서 서류 및 인성검사 등을 진행한다. ‘매칭데이’ 참여 사전접수 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순국선열 예우 · 위상 강화한다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익산의 지정학적 · 역사적 의미 담아내

익산시가 항일독립운동기념관과 보훈화관을 중심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항일의병투쟁부터 3·1운동 및 4·4만세운동에 이르는 익산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이 인화동에 소재하고 있다.

익산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은 2019년 도부터 추진해 지난해 3월 옛 대교농장 자리에 총사업비 12억6천만원으로 연면적 305㎡, 지상 1층 규모로 조성했다.

기념관은 순국선열에 대한 참배 공간이자 교통요충지였던 익산시의 지정학적 역사적 의미를 갖춘 곳으로 일제강점기 수탈상환과 항일운동 과정 속 지역 정서와 정체성을 담아낸 곳이

항일운동관, 일제강점기 수탈관, 4·4만세운동관 등 총 3개관으로 이루어진 기념관은 항일의병투쟁부터 익산의 독립운동인 4·4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의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올해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야외 태극기 포토존 설치, 문용기 열사 탁본체험, 문화재 불복제작 놀이 등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을 추가 조성했다.

한편 6·25 전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 호국 정신 계승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지어진 보훈화관은 연면적 945㎡, 지상3층 규모로 다목적실과 보훈단체 사무실, 육상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시는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위상 강화를 위해 참전 군인 및 경찰 등 172기가 안장되어 있는 팔봉, 여산 군경묘지의 4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비석을 2021년 전면 교체했다.

지난해 2억원을 투입해 군경묘지 진입로 포장 잔디 교체, 제각보수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애국심을 향상시키는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미망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의 보훈수당 인상과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역 3,200여명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유족)에게 연간 25억원의 보훈수당을 분기별 지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우종삼 재선거 당선인과 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은 지난 10일 의정실에서 군산시의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된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의장단은 지난 5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나선거구 우종삼 의원에게 의원 배치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영일 의장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군산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선배·동료 의원과 함께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



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자 우종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